

이 자료는 2026년 01월 06일 朝刊부터	보도자료 (시흥상공회의소)	담당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팀장 민지성
		전화번호	070-4485-9960

본 보도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r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목 : 시흥상공회의소 2026년 신년인사회 성료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현)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화) 오전 11시,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흥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황수성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함민규 시흥세무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유관기관장, 지역 상공인, 금융기관장, 경제·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흥시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낙현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관세·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행·IMF·KDI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가 2%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투자와 수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흥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산업안전 컨설팅과 실무·순회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노동·세무·환경·외국인 근로자 등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에도 상공인 간 네트워크 강화와 기업 현안 발굴·개선 활동에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전과 혁신으로 시흥 경제를 지켜온 기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과 스마트 제조,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시흥의 성장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 성장 산업 육성과 제조업의 스마트 전환, 산업단지 재생과 기업 환경 개선,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온 기업인과 상공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병오년 새해가 위기를 딛고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흥경제가 다시 속도를 내고 투자·소비·고용 회복의 긍정적인 흐름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기업과 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신년인사회가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희망을 다시 다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6년 한 해 동안 모든 사업장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다사다난하고 격동의 한 해였던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만큼, 2026년은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흥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주역은 경제인과 기업인들이라며, 올 한 해 시흥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현황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기업인들의 책임감과 인내가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평가하며, 병오년 새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장 중심·신속 대응·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제조 혁신과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기념사진 촬영 후 떡국 오찬을 함께하며, 시흥상공회의소가 지역에서 새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공식 행사인 ‘2026년 신년인사회’를 화합과 희망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